11일 Market Index
코스피 5375.36 (+136.23)
코스닥 705.10 (+37.49)
금리(국고채 3년) 3.729 (-0.096)
환율(원·달러) 1333.6 (-3.9)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전력 확충·공급, AI·반도체 성장 핵심과제"

메트로미디어, 에너지인프라포럼

"전력 중앙집중형 방식 벗어나 지역 생산·소비 '지산지소' 필요 결국 '용량 아닌 역량' 중점돼야"



메트로미디어가 주최한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이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정부와 산업계, 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과 인사이트를 제시했다. /최규춘 기자 ch9720@

인공지능(AI) 산업 확산과 반도체 생산시설 증설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구축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첨단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중단 없는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고, AI 데이터센터 역시 대규모 연산을 위해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만큼 발전설비 확충뿐 아니라 이를 산업 현장까지 전달할 송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메트로미디어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체불가K-에너지: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반도체와 AI,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성장 속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 생산과 송배전, 에너지 저장 및 수요관리 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L6·L7〉

이종민 한전기술지주 대표는 'AI 시대의 주요 기술과 서비스 그리고 에너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AI 기술 발전 단계에 따라 전력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표는 생성형 AI가 정보를 생산하는 단계를 넘어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가 실제 업무와 산업 현장에 개입하면서 데이터센터 규모도 수십㎿에서 수백㎿, 나아가 GW급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AI 모델의 학습 규모가 커질수록 전력 소비도 증가하는 만큼 중앙집중형 전력망을 보완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에너지부터 AI 응용까지 집대성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에너지 인프라가 있다"며 "과거 중앙집중형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정책연구실장은 에너지 안보의 범위가 석유·가스에서 전력과 핵심광물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내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입지 선정과 전력망 접속, 실제 사용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이터센터의 학습 작업과 냉각 설비 등 조절 가능한 부하를 활용해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유연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실장은 "발전설비를 몇 GW 짓느냐 ESS를 몇 MW 설치하는게 중요한 시대를 넘어 실제로 에너지가 필요할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며 "결국 용량에서 역량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15개 증권·은행 국고채 입찰담합에 1.6조 사상최대 과징금

공정위, 7개사는 중수청 고발
15개 PD사, 3년 6개월간 담합 적발
경쟁사와 5초만에 투찰금리 맞추고
입찰 매뉴얼 사내 공유 '일상적 관행'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고채 입찰 관련 1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증권사와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수년 동안 입찰 금리와 물량을 조직적으로 담합해온 사실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에게 부과한 과징금만 무려 1조 6000억 원을 웃돈다. 국가예산 낭비와 직결되는 공공·금융 분야 입찰 담합 역사상 손꼽히는 초대형 제재다. 〈관련기사 3면〉

공정위는 11일 교보·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대신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하나·산업·중소기업은행 등 은행 5곳 등 총 15개 국고채전문딜러(PD)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사를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수청 고발 대상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7개사다.

◆ 3년 6개월간 150건 입찰서 '한몸'… 담합 인수인계도

PD(Primary Dealer·국고채전문딜러)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를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채권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정경제부가 지정하는 핵심 금융기관이다. 이들은 매달 정부가 실시하는 국고채 경쟁입찰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일정 물량을 인수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대신, 정부로부터 국고채 비경쟁인수 권한이나 자금 지원, 우수 딜러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이번에 적발된 15개 PD사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총 150건의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마감 직전까지 전화와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투찰금리·물량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 기간 이뤄진 담합 중 145건은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실제 투찰 가격과 물량에 대한 구체적 의사 합치(입찰담합)로 이어졌다.

공정위가 확보한 내부 녹취록과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은 이미 '일상적 관행'이었다. 입찰 당일 경쟁사와 통화할 때 "안부 따윈 없다"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단 5초 만에 투찰 금리(예: 3.70%)를 맞추는 식이었다.

심지어 후임자에게 경쟁사 담당자의 연락처와 입찰 시간대별 연락 방법을 상세히 적은 '인수인계서'를 넘겨주거나, 입찰 20분 전부터 타사 금리를 조사해 평균값을 내는 '입찰 매뉴얼'까지 사내에 공유하며 손발을 맞췄다. 출장이나 연가 시 대직자까지 지정해 가며 담합의 끊김을 방지하기도 했다.

◆ 왜 담합했나… '고가 낙찰'과 '손실' 피하려 경쟁 포기

국고채는 국가 재정 조달의 핵심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채권 거래와 대출·예금 등 시중 금리 산정의 '기준(벤치마크)'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발행시장에서의 적정한 가격(금리)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美 '빅스텝' 거론에 韓, 금리 셈법 복잡

미국의 추가 긴축 경계가 한국은행의 금리 판단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국내 근원물가와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응할 필요성이 남은 가운데, 미국발 시장금리 상승이 국내 금융비용까지 밀어 올리면 고용 회복이 더딘 부문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9월의 0.6%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로이터가 집계한 예상치(0.3%)를 웃돌았다.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예상치(0.2%)보다 높은 0.3%로, 공표치 기준 세 달째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는 CPI 발표 전 연설에서 "근원 CPI가 약 0.3% 이상이면 12월 회의에서 정책금리 0.5%포인트(p)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 수치가 월러 개인의 검토 조건에 부합했지만, 빅스텝이 연준의 공식 방침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연준 이사 "0.5%p 인상 검토"
한은, 물가·가계부채 등 고려
오는 26일 기준금리 결정 나서

긴축 경계에 지난 10일 미국 거래 후반 2년물 국채금리는 전장보다 약 0.18%p 오른 4.731%를 기록했고 달러지수는 0.56% 상승했다.

오는 26일 금리 결정을 앞둔 한은은 국내 물가 경계도 늦추기 어렵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로 9월보다 0.1%p 낮아졌지만 한은 목표인 2%를 웃돌았다. 식료품·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는 2.8%로 같았다. 전체 물가 둔화에는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이 작용했다. 한은은 누적된 비용압력의 전이와 수요 측 압력 증대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가계부채도 살펴야 한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10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 원으로 9월 5000억원보다 커졌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에는 중도금·이주비 등 집단대출 증가가, 기타대출에는 전월 계절요인의 기저효과 등이 작용했다. 부채 관리 필요성을 보여주지만 증가액만으로 신규 주택 수요의 과열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추가 인상의 비용을 판단할 국내 지표도 엇갈린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0% 성장했고, 10월 전체 취업자도 전년 동월보다 13만 9000명 늘었다. 반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9%로 1.7%p 하락했고 건설업 취업자는 4만2000명 줄었다. 성장과 고용 개선이 취약부문까지 고르게 확산됐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메트로 한줄뉴스



▲눈길서 탱크로리·버스 연쇄추돌 한다면…행안부, 대응훈련
▲철도노조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사진 뉴시스

▲이춘석 의원 측 "무료함 달래려 소액 주식 거래"…'보좌관 폰' 혐의 부인
▲국힘 "이용철, '이재명 탈옥부 장관' 될 것"…주말 부산서 장외투쟁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2심도 무죄…"증명 부족"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손절"…10명 중 8명 '인간관계 다이어트'